

꿀벌이 사라졌다



양봉농가의 한숨

광주·전남 양봉농가 가보니

60% 실종... 텅 빈 벌통 피해 극심
동시다발 개화로 꿀 모으기 어려워
15만원 벌통, 40만원 상승 이중고
빈 벌통 태우다 합평 산불 내기도
양봉협회, 집단 폐사 대책 촉구

서히 사라진다고 한다. 꿀벌 사체도 없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확인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꿀벌이 사라지면 벌통 내부에 있는 '소비' (벌집틀)도 사용할 수 없어 손해가 크다.

김씨는 "벌들이 사라지면서 소비에 있는 애벌레가 방치돼 그대로 썩어버린다"며 "소비 1장에

5500원 정도 하는데, 올해만 약 900여개를 버려야 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합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도 이같은 이유로 양봉농가에서 소비를 태우다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대로 올해 농사를 포기할 수 없어 꿀벌을 새로 구매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부담이 상당하다.

꿀벌 1통(꿀벌 약 10만 마리)의 시세는 현재 40만원으로, 벌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2-3년 전 시세인 15만원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예전에는 2통 정도만 사면 만상벌(벌통에 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됐는데, 현재는 3.5통을 사야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주시 광산구 본량동에서 50여년째 벌 농사를 짓고 있는 정병호(79)씨는 꿀벌 110통 중 현재 20통만 남은 상황이다.

정씨는 "올해 채밀(꿀벌을 이용해 꿀을 따는 것)은 포기하고, 양성(꿀벌 늘리는 작업)만 하기로 결정했다"며 "없어진 꿀벌의 가치만 4000여만원, 올해 꿀벌 농사를 포기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5000여만원이다"고 밝혔다.

꿀벌은 이처럼 사라지는데, 국내 날씨가 따뜻해져 벌통을 사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예전에는 남쪽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서서히 위로 올라갔다면, 최근에는 기후가 변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꽃이 피고 있다"며 "전국을 이동하며 꿀을 따는 양봉업자들의 수입도 반토막이 났다"고 말했다.

양봉협회는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꿀벌 집단 폐사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양봉협회 관계자는 "다른 농사와 달리 양봉은 인간이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만큼, 빛을 지고 농사를 시작했다가 빛을 떠났고 양봉업계를 떠난 사람이 부지기수다"며 "양봉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최근 2년간 약 20억 원을 투입해 꿀벌 질병 예방과 꿀벌 구입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전남도도 올해 꿀벌 피해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꿀벌 구매비, 사료 구매비용 등 약 60억 원을 지원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꿀벌이 사라지는 원인은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며 "현재 꿀벌 농가 피해에 대한 지원을 재해 발생 수준으로 늘려, 식량작물 생산 등 공익적 가치가 큰 꿀벌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양봉 농민이 지난달 31일 담양군 수북면에 있는 꿀벌 농장에서 텅 비어있는 벌집틀을 손에 들고 있다.

한빛원전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철회 촉구 민간안전감시위원회 성명서

한빛원전 민간 환경·안전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가 한빛원전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감시위는 "지난 3일 한빛원전 민간 환경·안전 감시센터 2층 회의실에서 82차 감시위원 회의를 열고 '한빛원전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는 6일 한빛원전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 안전을 상정할 예정이다.

감시위는 한수원을 향해 "영광군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 행위"라며 "독단적 건설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채택한 성명서에는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 이사회 상정 즉각 철회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 즉각 중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특별법에 대한 영광군민 의견 반영 협조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시위 모든 위원은 6일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는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안연구원을 향의 방면해 성명서를 전달하고 집회를 열 방침이다.

/영광=이준윤 기자 jylee@kwangju.co.kr

광주 지역 일부 영어학원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 사용 '학벌없는 모임' 교육청 감독 촉구

광주지역 일부 영어학원이 '영어 유치원' 등의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5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지역 일부 영어학원은 '영어유치원', '캠퍼스', '국제학교' 등으로 홍보하며 마치 학원을 유치원인 것처럼 표기해 불법으로 교습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전남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광주시 남구 봉선동과 수완지구 등에 있는 11개 영어학원이 이 같은 방법으로 SNS 등을 통해 홍보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아교육법을 위반한 행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중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단체는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의 적극적인 감독을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교육청은 매년 2차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은 커녕 적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도 감독 일정을 앞둔 시교육청이 과도한 학습과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교습과정 및 학원 광고물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법원, 미쓰비시 국내 특허권 4건 압류 결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신청 수용
돌덩이 발언 한 총리 파면 촉구도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 압류를 결정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사)일제강제동원사민모임(사민모임)은 "대전 지방법원은 지난 3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재립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한 압류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압류 대상은 원고 1명 당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특허권 각 1건씩 총 4건으로 배상액과 지연이자를 합해 6억8700만원에 달한다. 압류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특허권에 대한 매매, 양도, 기타 일체 처분이 금지된다.

사민모임은 이번 압류결정까지 포함하면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자산(특허권·상표권) 중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총 12건(특허권 10개·상표권 2개)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1심 승소 당시 피해자 측은 배상액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지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양극박-김성주 할머니 재판 결과를 보기위해 미뤄왔다.

하지만 최근 원고들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4년여가 지났음에도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정부가 제3자 방해를 발표하는 등 원고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강제집행에 나서게 됐다.

5일 사민모임은 지난 3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답변한 한덕수 총리를 파면할 것을 촉구하는 규탄 성명도 내놨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강제집행하겠다는 일들이 진행되면서 한일 관계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면서 "이러한 돌을 치운 것을 계기로 앞으로 한일이 서로 바람직한 관계로 가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민모임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가 하면, 일본의 적반하장 주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선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6일 오전 11시에는 양극박 할머니의 고향인 나주 금성관 망화루 앞에서 '망국적 굴욕외교 윤석열 정부 규탄 나주시민'들의 기자회견이 예정 돼 있고, 12일 오전에는 대법원 앞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반영구적 사용가능
- 관리의 간소화
- 낮은 관리비
- 자연과의 동화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